

전북도, 문화유산 돌봄사업 '최우수'

국가유산청장 기관표창 수상... 전북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 2년 연속 최우수단체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국가유산청이 주관한 '2025년 문화유산 돌봄 합동연수회'에서 문화유산 돌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유산청장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전북도는 문화유산 보존·관리 분야에서 전국을 선도하는 광역지자체임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이 실시한 '2025년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평가'에서 전북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센터장 남해경)가 2년 연속 최우수단체에 선정되어 전국 최고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

전북도는 동부·서부권역 2곳의 문화유산돌봄센터에서 770개소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 풀궤기·환경정비 등 일상관리, 기와·담장보수·도배 등 경미수리, 재해예방 지원을 수행하며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기반을 구축해 왔다.

지난해에도 서부돌봄센터가 최우수단체, 동부돌봄센터가 우수단체로 선정되며 전국 돌봄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올해는 재난 대응, 양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돌봄인력 양성, 미래세대 교육 등 전반적인 문화유산 돌봄에서 한층 발전된 성과를 만들어냈다.

특히, 권역별 특성에 맞춘 운영전략을 바탕으로 위험요인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모니터링 고도화, 경미수리 품질 향상, 재난대비 예산강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국가유산청이 주관한 '2025년 문화유산 돌봄 합동연수회'에서 문화유산 돌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유산청장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화 등 현장 밀착형 돌봄체계를 구축하며, 문화유산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또한, 도민 참여형 문화유산 돌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과 어린이, 청소년 등이 직접 문화유산 보존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문화유산을 체험하고 보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전북도의 돌봄 운영방식은 전국에서도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으며, 올해 평가에서도 운영체계 적정성, 사업관리 역량, 품질관리 수준 등

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전북도의 체계적 지원과 전략적 관리 역량이 입증되었다.

이정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수상은 전북도의 체계적 지원과 돌봄센터의 헌신적 노력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예산·기술·성과·행정 지원을 아우르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두 돌봄센터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도민 참여와 미래세대 교육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돌봄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태권도원 1박 2일 특별 캠프 열린다

12월 6~7일 태권도·타악 퍼포먼스·달맞이 소원 빌기 등 진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태권도'와 '한국 전통문화'를 태권도원에서 체험할 수 있는 특별 캠프 '도원 마님과 함께 하는 이야기 속으로'를 오는 12월 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 캠프에서는 '전통 타악기 - 북'과 함께하는 태권도 퍼포먼스, '달맞이 소원 빌기', 태권전과 명인관 등을 중심으로 한 '발로 느끼는 태권도원' 등 태권도와 한국 전통문화를 듣고, 보고, 체험할 수 있다.

먼저, 우리 민족 전통 타악기인 '북'과 태권도를 결합한 타악 체험은 참가자들이 직접 북을 치며 태권도의 힘과 리듬을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태권도원 달맞이는 12월 6일 밤, 티(TI) 경기장과 태극지 일대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달에게 소원을 비는 일정으로 야간에 진행한다. 특히 2025년 마지막 보름달인 12월 4일을 불과 이틀 지난 후 달맞이를 하며 밝은 달의 기운과 여운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로 느끼는 태권도원'은 7일 오전에 진행하며 태권전과 명인관, 전통무예수련장 등 태권도원 곳곳을 둘러보며 그 장소의 숨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청취형 일정이다.

김중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이번 특별 캠프는 태권도 수련자와 비수련자에 관계없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



그램으로 태권도와 우리 전통문화의 결합을 통해 태권도원의 새로운 매력을 전달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태권도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원 마님과 함께하는 이야기 속으로' 참가 신청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태권스테이 신청 사이트인 '노는 법'을 검색 후 '상단 - 여행지 찾아보기'에서 '태권도원'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참가비용은 1인 6만 5백 원이다.

/우주=전문선 기자

지역민과 함께하는 예술제 개최

전북대 예술대 5개 학과, 12월 2일까지 공연·전시 등 진행

전북대학교 예술대학(학장 이미배)은 11월 20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교내 삼성문화회관과 JBNU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예술제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예술제는 그동안 학과별로 분산 개최되던 졸업작품전과 정기 공연 등을 약 2주간 집중 선보이도록 기획된 것으로, 지역민들에게

보다 풍성하고 다채로운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술제에는 한국음악학과, 무용학과, 음악과,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과 등 5개 학과가 참여한다.

공연 부문은 삼성문화회관 영신홀에서 진행되며, 20, 21일 한국음악학과의 창극·국악 관현악 무대를 시작으로 26일 무용학과 졸업작품

발표회, 29일 음악과 정기연주회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가 무대를 채운다.

전시 부문에서는 미술학과 졸업작품전이 삼성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리며, 산업디자인학과 졸업전시회가 '개성과 창의성의 공존'을 주제로 25일부터 JBNU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양오봉 총장은 "예술은 지역의 숨결을 담아내고 세대를 잇는 다리"라며 "이번 예술제가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전북대만의 종합 예술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고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지역 청년 공감·소통 간담회 개최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산하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원장 정전희)는 지난 18일 '2025 청년의 발견 - 지역 청년 공감·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3차에 이은 것으로 청년들의 삶에서 비롯되는 성평등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지역 정책과 사회적 변화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청년 당사자인 결혼이주배경 청년, 귀농귀촌 청년, 청년 단체·협동조합 활동가와 지역 유관기관인 무주군 가족센터, 전북 농어촌농어업일자리플러스센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청년 주도형 성평등 문화 확산 △안전정적 일자리와 주거 기반 마련 △양육 및 돌봄 지원 확대와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지역 내 참여와 소속감 제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박물관, 교내 유학생 대상 지역문화탐방 성료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박물관은 지난 9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교내 유학생 7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지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한옥마을 문화유적 탐방 △완주 대성현지마를 △지역 문화 이해와 전통문화 체험 △서예, 문인, 초목·다양한 기록의 방식 등 4개 코스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학생들은 전주대학교에 재학중인 네pal·베트남·우즈베키스탄·미얀마·이탈리아·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이다. 교직원과 함께 전주, 군산의 박물관, 미술관, 역사관 등을 탐방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대학교 박물관 박현수 학예연구실장은 "지역 소장품과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전과 유물들을 유학생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은 지역의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기회였다"며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 유학생들은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한국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특별전과 체험프로그램은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실(063-220-2159)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열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